

2024 EBS 수능특강

2024 EBS 수능특강 인매 1. 개념학습 1강 | 언어와 매체의 본질

이 서적은 「저작권법」에 따라 보호됩니다. 본 자료의 무단 배포, 도용 시,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
[1~5] (가)는 종이 신문이고, (나)는 인터넷 신문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

11면 ◇◇일보 과학 20××년 ×월 23일 월요일

K-위성 시대를 향한 힘찬 출발

차세대 중형 위성 X호 발사 성공...우주 기술 독립까지는 아직 갈 길 멀어

지난 22일 한국은 독자 기술로 완성한 '차세대 중형 위성 X호'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.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7분 □□ 우주 센터에서 발사된 차세대 중형 위성 X호가 오후 4시 49분에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했다고 밝힌 데 이어, 본체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타원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전했다. 이번 위성 발사는 두 차례나 발사가 연기된 끝에 거둔 성공이어서 마음을 졸이며 발사 순간을 지켜보았던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고 있다. 이 위성은 원래 지난 20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으나, ㉠ 발사체 상단을 제어하는 장비에 문제가 감지돼 발사가 이날로 연기된 것이다.

○○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진과 축하 통화를 하면서, 위성의 핵심 구성품을 국산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. 그리고 ㉡ 국내 우주 항공 기술 분야가 쌓아 온 기술과 경험을 더욱 확장하여 우주 산업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.

한편 △△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인공위성과 한국형 발사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우주 개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 시장의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,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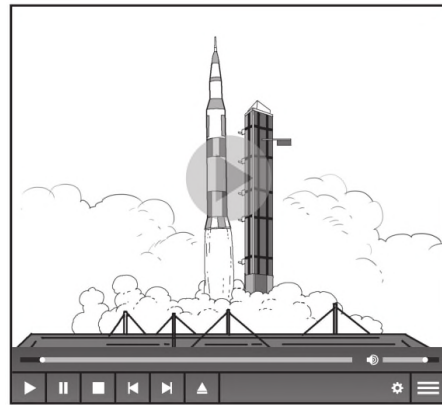
김○○ 기자 kim\*\*@◇◇news.com <이하 생략>

(나)

차세대 중형 위성 X호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연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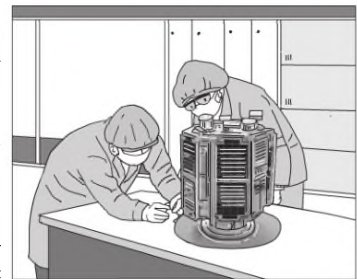
등록: 20××년 ×월 22일 18:33 | 수정: 20××년 ×월 22일 18:41

×월 22일 국산 기술로 만든 '차세대 중형 위성 X호'가 드디어 로켓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발사되었다. 이것은 우주 독립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, 우리도 우주 기술 강국의 하나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. ㉢ □□ 우주 센터에서 화염을 뿜으며 발사된 로켓 발사체에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차세대 중형 위성 X호가 탑재되어 있다. 차세대 중형 위성 X호는 발사된 지 약 64분 후에 발사체에서 분리되었고, 오후 4시 49분에 지상 관제국과 처음으로 교신에 성공했다.



<차세대 중형 위성 X호 발사 장면>

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인 ▽▽▽ 박사는 차세대 중형 위성 X호는 6년의 노력 끝에 완성된 위성으로, ㉣ 초정밀 지구 관측이 가능해 여러 분야



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 차세대 중형 위성 X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위성 개발이 세계적인 수준에

오르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. ㉠ 차세대 중형 위성 X호는 앞으로 6개월간의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하게 된다.

이☆☆ 기자 lee\*\*@◇◇news.com



[A] [관련 기사](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)  
▶ 국내 우주 산업 어디까지 왔나  
▶ 차세대 중형 위성 X호 개발에 바친 인생

댓글을 입력해 주세요.

댓글 1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

Han 4시간 전  
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리는 순간 너무 멋져요.^^  
♡5 ♡0

1. (가)와 (나)의 매체적 특성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(가)는 기사의 배치와 분량을 달리하여 정보의 중요도에 차이를 둘 수 있다.
- ② (나)는 정보의 생산자가 수용자에게 시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③ (가)는 (나)와 달리 정보의 생산자가 누구인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다.
- ④ (나)는 (가)와 달리 새로운 정보를 수용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하기가 쉽다.
- ⑤ (나)는 (가)와 달리 모두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첨부하여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.

2. (가)와 (나)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(가)와 달리 (나)는 댓글을 통해 생산자와 수용자가 소통할 수 있다.
- ② (가)와 달리 (나)는 정보를 제공할 때 영상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③ (가)와 달리 (나)는 달리 지식을 대중화시킬 수 있다.
- ④ (나)는 음성 언어와 달리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.
- ⑤ (나)는 음성 언어와 달리 지식의 기록, 추적, 보존이 가능하다.

3. [A]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수용자의 반응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- ② 수용자는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기사를 공유할 수 있다.
- ③ 수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때에 기사를 다시 볼 수 있다.
- ④ 수용자는 기사가 작성한 다른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.
- ⑤ 수용자는 기사와 관련 있는 다른 기사에 접근할 수 있다.

4. (나)의 기자가 (나)를 작성하기 전에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한 것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<보기>

ㄱ. 위성 발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위성 발사의 의미를 드러내야겠어.

ㄴ. 한번 작성하면 수정이 어려우니 지상 관제국과 교신에 성공한 시각을 정확히 작성해야겠어.

ㄷ. 독자들이 위성 발사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동영상도 첨부해야겠어.

ㄹ. 우리나라의 위성 개발에 대한 해외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야겠어.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ㄴ, ㄷ
- ④ ㄴ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ㄷ, ㄹ

5. ㉠~㉣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㉠: 피동 표현 ‘-돼’를 통해 발사가 연기된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.
- ② ㉡: 선어말 어미 ‘-겠-’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.
- ③ ㉢: 연결 어미 ‘-으며’를 통해 로켓 발사체의 두 가지 동작 및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.
- ④ ㉣: 의존 명사 ‘수’를 통해 위성의 전망을 밝히고 있다.
- ⑤ ㉤: 의존 명사 ‘간’을 통해 초기 운영 과정이 실시되는 기간을 드러내고 있다.

【6~10】 (가)는 종이 신문이고, (나)는 인터넷 신문이다. 물음에 답하십시오.

(가)

11면 ◇◇일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과학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××년 ×월  
23일 월요일

**K-위성 시대를 향한 힘찬 출발**

차세대 중형 위성 X호 발사 성공...우주 기술 독립까지는 아직 갈 길 멀어

지난 22일 한국은 독자 기술로 완성한 ‘차세대 중형 위성 X호’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다.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7분 □□ 우주 센터에서 발사된 차세대 중형 위성 X호가 오후 4시 49분에 지상국과 최초로 교신했다고 밝힌 데 이어, 본체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타원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전했다. 이번 위성 발사는 두 차례나 발사가 연기된 끝에 거둔 성공이어서 마음을 졸이며 발사 순간을 지켜보았던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고 있다. 이 위성은 원래 지난 20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으나, 발사체 상단을 제어하는 장비에 문제가 감지돼 발사가 이날로 연기된 것이다.

○○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진과 축하 통화를 하면서, 위성의 핵심 구성품을 국산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. 그리고 국내 우주 항공 기술 분야가 쌓아 온 기술과 경험을 더욱 확장하여 우주 산업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적

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.

한편 △△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인공위성과 한국형 발사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우주 개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국내 및 해외 시장의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,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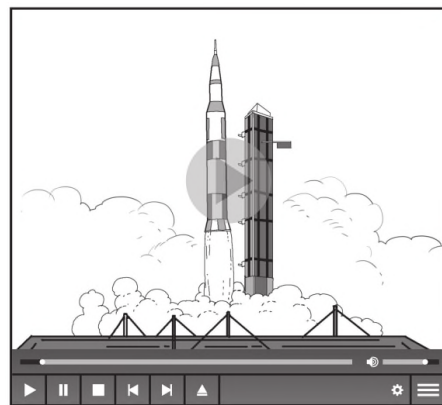
김○○ 기자 kim\*\*@◇◇news.com  
<이하 생략>

(나)

**차세대 중형 위성 X호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연다**

등록: 20××년 ×월 22일 18:33 | 수정:  
20××년 ×월 22일 18:4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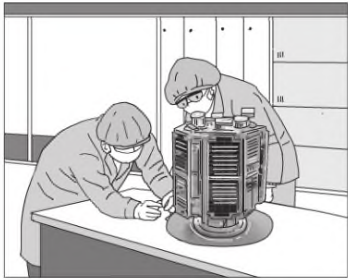
×월 22일 국산 기술로 만든 ‘차세대 중형 위성 X호’가 드디어 로켓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발사되었다. 이것은 우주 독립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, 우리도 우주 기술 강국의 하나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. □□ 우주 센터에서 화염을 뿜으며 발사된 로켓 발사체에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차세대 중형 위성 X호가 탑재되어 있다. 차세대 중형 위성 X호는 발사된 지 약 64분 후에 발사체에서 분리되었고, 오후 4시 49분에 지상 관제국과 처음으로 교신에 성공했다.



<차세대 중형 위성 X호 발사 장면>

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인 ∇∇∇ 박사는 차세대 중형 위성 X호는 6년의 노력 끝에 완성된 위성으로, 초정밀 지구 관측이 가능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 차세대 중형 위성 X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위성 개발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게 된

것이라고 평가하며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. 차세대 중형 위성 X호는 앞으로 6개월간의 초기 운영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임무 수행을 하게 된다.



이☆☆ 기자 lee\*\*@◇◇news.com



[관련 기사](아래를 눌러 바로 가기)

- ▶ 국내 우주 산업 어디까지 왔나
- ▶ 차세대 중형 위성 X호 개발에 바친 인생

댓글을 입력해 주세요.

🗨️ 📎 📧 ① 등록

댓글 1 최신순 과거순 공감순

N Han 4시간 전  
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 시대가 열리는 순간 너무 멋져요.^^  
 🗨️ ♡5 🍵0

6. (가)와 (나)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표제와 부제를 통해 기사 내용을 압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.
- ② 시각 자료를 첨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.
-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.
- ④ 기사 내용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
- ⑤ 기사 내용에 대한 기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.

7. 다음은 (나)를 읽은 후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시저로 나눈 대화이다. ㉠~㉣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영수야, 혹시 아까 내가 한번 보라고 했던 인터넷 기사 봤니? 여기 파일을 보면 지난번 과학 동아리 활동 주제가 바로 인공위성이었는데 말이야. **동아리 활동 모음.hwp** ... ㉠

주희

응, 맞아. 나도 그 기사 봤지. 근데 우리가 조사해야 할 부분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아서 따로 정보를 더 찾아 봤어. <http://www.△△△.kr> 내가 찾아본 정보가 있는 주소인데 너도 한번 볼래? ... ㉡

영수

아 나도 기사에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통했네. ㅎㅎ 정말 고마워. ^^ 네가 보내 준 주소 들어가 보니 정보가 더 많다! ☺ 그런데 시각 자료는 많은데 동영상 자료는 없어서 뭔가 아쉽네. ... ㉢

주희

응. 동영상 자료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더 찾아 볼까? ... ㉣

영수

그래. 내가 찾아볼게!

주희

아, 여기 있네. 이 자료도 활용하면 좋겠다. ㅋㅋ <http://www.□□□.kr> ... ㉤

주희

우아, 빨리 찾았구나. 고마워.

영수

- ① ㉠: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- ② ㉡: 기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정보를 찾아 공유하고 있다.
- ③ ㉢: 한글의 특정한 자음자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.
- ④ ㉣: 의문 형식을 활용하여 인터넷 매체로 자료를 더 수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.
- ⑤ ㉤: 동영상 자료가 있는 사이트를 찾아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.

8. (가), (나)와 같은 기사문을 쓸 때 고려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명료하게 기술한다.
- ② 일반적으로 '표제-부제-본문'의 구조로 내용을 조직한다.
- ③ 사실을 근거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선별해 전달한다.
- ④ 글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시각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.
- ⑤ 모호하거나 함축적인 표현의 사용을 피한다.

서술형 문제

9. (가)와 같은 종이 신문과 (나)와 같은 인터넷 신문이 지닌 장단점을 각각 서술하시오.

서술형 문제

10. (나)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신문의 기능을 <조건>에 따라 서술하시오.

<조건>

- 수용자의 측면에서 두 가지 이상 서술하되 각각 '수용자는 ~ 수 있다.'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

## 정답 및 해설

### 1. 정답 ③

(가)에는 신문을 발행한 언론사의 이름뿐만 아니라 기사 하단에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. 따라서 정보의 생산자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.

① (가)는 인쇄 매체인 종이 신문이다. (가)는 중요도가 높은 기사를 첫 페이지 상단에 배치해 비중 있는 분량으로 다룰 수 있다. 이에 비해 중요도가 비교적 낮은 기사는 지면 하단 또는 마지막 페이지에 짧게 다룰 수 있다. 즉 기사에서 다루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기사의 배치와 분량을 달리하는 것이다.

② (나)의 기사들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전달된다. (나)는 생산자가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수용자에게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④ (가)는 인쇄 매체인 종이 신문이므로 인쇄되어 유포되기까지의 과정으로 인해 수용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즉각적으로 전달하기가 어렵다. 반면 (나)는 인터넷 매체로, 인터넷망을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수용자에게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.

⑤ (나)는 인터넷 매체로,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기사에 첨부하여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. 그러나 (가)는 인쇄 매체이므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시각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 자료는 첨부할 수 없다.

### 2. 정답 ③

인쇄 매체를 통해서도 내용이 널리 유통되도록 하여 지식을 대중화시킬 수 있다.

① (가)와 달리 (나)와 같은 인터넷 매체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즉각적으로 댓글 등의 기능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.

② (가)와 달리 (나)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시각 자료뿐만 아니라 시청각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④ 음성 언어(말)는 직접 만나서 소통해야 하므로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지만, (나)와 같은 전자 매체

는 이러한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.

⑤ 음성 언어와 달리 (나)와 같은 인터넷 매체에서는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기록이 이루어지며, 기록은 영구 보존 가능하다.

### 3. 정답 ④

[A]에서는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확인할 수 없다.

① ‘좋아요’를 통해 수용자의 반응을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.

② ‘SNS에 공유’ 기능을 통해 수용자는 자신의 SNS에 기사를 공유할 수 있다.

③ ‘스크랩’이나 ‘즐거찾기’ 기능을 통해 수용자는 기사를 보관하여 자신이 원하는 때에 기사를 다시 볼 수 있다.

⑤ ‘[관련 기사]’를 통해 수용자는 기사와 관련 있는 다른 기사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.

### 4. 정답 ②

ㄱ. ‘이것은 우주 독립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, 우리도 우주 기술 강국의 하나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.’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ㄴ. ‘<차세대 중형 위성 X호 발사 장면>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ㄷ. 인터넷 신문은 종이 신문에 비해 작성 후 수정이 용이하다.

ㄹ. 해외 전문가가 아닌 한국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.

### 5. 정답 ⑤

‘간’은 의존 명사로도 쓰이고 접미사로도 쓰이는데, ㉠의 ‘6개월간’에서 ‘간’은 ‘동안’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쓰였다.

① ‘감지돼’의 ‘돼’는 ‘되어’의 준말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.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발사가 연기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.

② ㉡의 ‘-겠-’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.

③ ‘뿔으며’의 ‘-으며’는 두 가지 이상의 동작 또는 상태를 아울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, 로켓 발사체의 두 가지 동작 및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.

④ ‘어떤 일을 할 만한 힘이나 가능성’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 ‘수’를 사용하여 위성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밝히고 있다.

6. **정답** ③

(가)에서는 △△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, (나)에서는 한국 항공 우주 연구원인 ▽▽▽ 박사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.

① (가)는 표제와 부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(나)는 표제만 사용하고 있다.

② 시각 자료는 (나)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.

④ (나)에서만 ‘좋아요’, ‘댓글’ 등을 통해 독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

⑤ (가)와 (나) 모두 위성 발사에 대한 기자의 주관적인 평가는 확인할 수 없다.

7. **정답** ①

하이퍼링크가 아닌 파일을 첨부하여 기사의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

② 영수는 (나)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, (나)에서는 확인할 수 없던 다른 정보를 찾아 그 정보가 있는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.

③ 주희는 ‘ㅎㅎ’와 같이 한글의 특정한 자음자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.

④ 영수는 ‘찾아 볼까?’라는 의문 형식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자료를 더 찾아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.

⑤ 주희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동영상 자료가 있는 사이트의 주소를 공유하고 있다.

8. **정답** ④

기사문을 작성할 때 반드시 시각 자료를 활용할 필요는 없으며, 시각 자료를 많이 활용한다고 글의 가독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.

① 기사문은 일반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내용을 명료하게 기술하여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.

② 기사문은 일반적으로 ‘표제-부제-본문’의 구조로 내용을 조직하며, 표제를 통해 본문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드러낸다.

③ 기사문은 사실을 근거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선별해 독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⑤ 기사문을 작성할 때에는 모호하거나 함축적인 표현의 사용은 피해야 하며 명료한 문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.

9. **정답** 종이 신문은 댓글을 달거나 기자에게 전자우편을 보낼 수 없어서 상호 소통에 한계가 있지만 인터넷이나 이동 통신 기기 등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 여전히 유익하다. 종이 신문은 제공된 정보만을 수동적으로 접해야 하지만 광고 창이 뜨지 않는 등 인터넷 신문보다 기사의 내용에 집중하기가 쉽다. 종이 신문은 즉물적이어서 감촉을 느끼며 읽을 수 있고 직접 펜으로 밑줄을 긋거나 중요 기사 등을 오려서 따로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. / 인터넷 신문은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면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으나 인터넷이나 이동 통신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. 인터넷 신문은 주요어를 활용하여 기사를 선별하여 읽을 수 있으나 광고 창이 뜨는 등 기사의 내용에 집중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. 인터넷 신문은 수용자가 기사의 내용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등 상호 소통이 가능하지만, 그 과정에서 자칫 감정적인 대립이나 갈등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.

10. **정답** 수용자는 ‘좋아요’나 ‘댓글’을 통해 기사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남길 수 있다. / 수용자는 ‘스크랩’, ‘즐거찾기’를 통해 기사 내용을 저장하여 자신이 원하는 때에 기사를 다시 볼 수 있다. / 수용자는 ‘SNS에 공유’를 통해 기사를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공유할 수 있다. / 수용자는 ‘[관련 기사]’를 통해 필요에 따라 기사 내용과 관련된 다른 기사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.

서지정보

저자 김아름

발행처 나무아카데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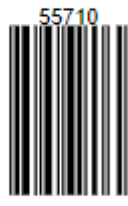
isbn 979-11-377-4774-6

제본형태 hwp pdf 파일

발행일 2023.04.30

가격 1,500원

값 1500 원



ISBN 979-11-377-4774-6 (PDF)